

문학 주간지

day 1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1.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낯설게 바라본다.
- ② 예술적 감각으로 도시인의 숨결을 감각화하고 있다.
- ③ 타인의 흔적에서 인간 존재의 따뜻함을 인식한다.
- ④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현실의 비정함을 극복한다.
- ⑤ 외부의 현상을 관조하며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2.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관심 → 경멸 → 체념
- ② 냉정한 관찰 → 감탄 → 연민
- ③ 의심 → 분노 → 냉소
- ④ 고독 → 유머 → 환희
- ⑤ 경계 → 환상 → 자부심

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 ② 반복되는 운율을 통해 시적 통일성을 강화한다.
- ③ 일상의 구체적 사물을 예술적 대상으로 변모시킨다.
- ④ 은유적 표현으로 인간의 존재를 상징화한다.
- ⑤ 대조적 이미지로 차가움과 따뜻함의 공존을 드러낸다.

4. ‘성에꽃’의 상징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욕망이 남긴 흔적
- ② 차가운 현실 속 인간의 온기와 아름다움
- ③ 기계적 일상에 대한 비판 의식
- ④ 세속적 열정의 결과물
- ⑤ 덧없음과 허무의 표상

5. 아래 <보기>를 바탕으로 위의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시는 종종 일상의 사물과 현상에 ‘예술적 감각’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의 비루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재발견하려는 시적 행위를 수행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물화된 세계’에 인간의 감정이 흔적으로 남는 매개적 순간성이다. 시인은 그 찰나적 순간을 통해, 사라지는 인간의 체온이 현실의 차가움을 예술적 형상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따라서 현대적 예술 감수성은 고통이나 소외를 단순히 미화하지 않으며, 냉혹한 일상과 따뜻한 인간성의 공존이라는 역설적 긴장을 수용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심연을 사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성에꽃’은 물리적 차가움 위에 피어난 감각적 형상인 동시에, 사회적 소외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이 교감하던 시대적 기억을 활기하는 존재론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화자는 성에꽃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 차가운 현실 속 인간의 온기를 인식하며 예술적 감흥으로 승화한다.
- ② 화자는 성에꽃을 인간의 감정이 물질 위에 남긴 흔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단절의 의미에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 ③ 시인은 성에꽃이 사라지는 순간에 담긴 인간적 온기를, 냉혹한 현실과 공존하는 예술적 긴장으로 포착함으로써 일상의 사소한 장면을 존재론적 사유의 대상으로 확장한다.
- ④ 화자는 현실의 비루함 속에서 성에꽃을 ‘예술적 형상’으로 전환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체온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한다.
- ⑤ 시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현실의 역설을 드러내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가능성은 예술적 시선 속에서 탐색한다.

내 골방의 커 - 퉁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
 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
 隊)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 푸른 커 -퉁을 걷게 하겠
 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수인: 옥에 갇힌 사람. - 이육사, 「황혼」

1.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혼을 의인화하여 세계와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개인의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 만물과 교감하려 한다.
- ③ 감각적 언어를 통해 내면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 ④ 황혼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외로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각적 이미지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세계를 포착한다.
- ② 일상의 사물을 상징화하여 관념적 사유로 전환한다.
- ③ 반복과 대조를 활용해 황혼의 이중적 정서를 강조한다.
- ④ 평이한 진술을 통해 현실적 고뇌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 ⑤ 비유적 서술 대신 개념적 진술로 정서를 절제한다.

3. '황혼'의 상징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멸과 허무의 끝자락
- ② 인간의 외로움과 연대의 가능성의 공존하는 경계
- ③ 절망 이후의 구원과 재생
- ④ 개인적 평온과 자족의 세계
- 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냉정한 인식

4. 다음 <보기>를 읽고,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투영이자 보편적 존재와의 접속점이다. 특히 <황혼>에서 시인은 '황혼'이라는 경계의 시간을 통해 인간 내면의 결핍과 초월의 욕망을 동시에 드러낸다. 화자는 개인의 골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감각적 상상력을 통해 우주적 차원의 연대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적 행위는 현실의 고립을 벗어나려는 도피가 아니라, 내적 생명력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의 황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멸과 생성이 교차하는 존재론적 순간이며,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적 통로로 기능한다.

- ① 화자는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세계와의 교감을 모색하며 인간 존재의 연대를 체험한다.
- ② 화자는 황혼의 상징을 통해 시간의 유한성과 존재의 초월성을 동시에 인식한다.
- ③ 시는 황혼을 배경으로 개인의 고립과 소멸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무력함을 절대화 한다.
- ④ 화자는 자신의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감각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존재와 교감 한다.
- ⑤ 시는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경계의 시간 속에서, 인간 내면의 결핍을 예술적 감흥으로 승화한다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온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애!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달었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 정지용, 「불사조」

1.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애를 내면화된 존재로 인식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 ② 감정의 대상을 외화하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한다.
- ③ 비애를 극복하고 평온한 현실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④ 슬픔과 고통을 예술적 인식의 대상으로 승화한다.
- ⑤ ‘비애’를 통해 인간 존재의 고독과 자기 성찰을 드러낸다.

2.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념 → 슬픔 → 초월
- ② 저항 → 수용 → 환희
- ③ 부정 → 동일시 → 승화
- ④ 절망 → 냉소 → 무감
- ⑤ 고통 → 분노 → 단절

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이미지와 반복 어구를 통해 정서를 고조시킨다.
- ② 구체적 묘사보다는 서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 ③ 감정의 폭발보다는 이성적 절제로 시상을 이끈다.
- ④ 현실 묘사를 중심으로 비유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 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울림을 강조한다.

4. ‘불사조’의 상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애를 불태워 없애려는 파괴적 의지
- ②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을 얻으려는 정신의 부활
- ③ 절망의 반복과 허무의 순환
- ④ 현실 도피와 자기 망각의 욕망
- ⑤ 생의 유한함을 자각한 냉정한 체념

5. 다음 보기 중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지용의 시에는 감정의 직접적 토로보다, 내면의 추상적 정조를 상징화하는 자기 성찰적 언어가 두드러진다. 특히 〈불사조〉는 ‘비애’를 단순한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시적 자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론적 짐(負擔)으로 형상화한다. 화자는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실존적 조건을 인식한다. 그러나 동시에 ‘불사조’의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재생의 가능성으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 이처럼 시인은 감정의 심연을 응시하면서, 비애 속에서 새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는 독특한 미학을 구현한다.

- ① 화자는 비애를 자신 안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성찰한다.
- ② 시는 고통을 내면화한 화자가 감정의 깊이를 깨닫고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화자는 비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현실적 구원과 안정을 지향한다.
- ④ ‘불사조’의 이미지는 슬픔의 재생과 내면의 간신을 상징한다.
- ⑤ 시는 절망을 소멸로 귀결하지 않고, 예술적 승화의 가능성은 제시한다.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애의 깁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⑦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⑧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 문병란, 「꽃씨」

1.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덧없음을 성찰한다.
- ② 소멸의 과정을 내적 성숙의 계기로 받아들인다.
- ③ '외로움'을 내면의 생명력으로 인식한다.
- ④ 현실의 허무를 부정하며 생의 의지를 과장한다.
- ⑤ 자연의 변화에 자신을 겹쳐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

2. ⑦과 ⑧의 정서상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의 성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으로 전환되는 과정
- ② 고통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정서적 소멸
- ③ 감정의 고조가 외부 동요로 이어지는 전환
- ④ 현실과의 단절이 심화되어 고독으로 치닫는 흐름
- ⑤ 내면의 외로움이 불안으로 확산되는 변화

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생의 순환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 ② 단순한 서정적 진술로 계절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③ 의인화와 직유를 반복하여 구체적 정서를 과장한다.
- ④ 구체적 사물 묘사를 배제하고 추상적 어휘로 감정을 절제한다.
- ⑤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청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정서를 표현한다.

4. ‘꽃씨’의 상징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출발을 향한 현실적 결단
- ② 소멸 이후에 남은 생명의 가능성
- ③ 시간의 흐름에 대한 냉정한 체념
- ④ 과거의 화려함을 회상하는 단서
- ⑤ 생의 부질없음을 드러내는 잔여물

5. 다음 보기를 읽고,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지용의 후기 시에는 감정의 과잉을 절제하고, 사물의 내면적 의미를 응시하는 사색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가을날〉에서 ‘꽃씨’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남은 ‘최종의 형태’이자,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상징적 매개이다. 화자는 외로운 내면의 깊이를 응시하면서, 그것을 자연의 이치와 결부해 고요한 성숙의 정조로 형상화한다. 따라서 이 시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덧없음 속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새로이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화자는 생명의 소멸 이후에도 남은 ‘꽃씨’의 형태를 통해, 사라짐 속에서도 생이 지속된다 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내면화하고 있다.
- ② 시는 찬란했던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 행위를 통해, 시간의 단절이 아닌 기억의 변형을 암시하며, 존재의 지속성을 사유하게 한다.
- ③ 화자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절제된 평정으로 조율함과 동시에, 그 고요함은 내면의 생명력의 정적(靜的) 상태로 귀결된다.
- ④ ‘기인 기다림의 창변’은 단순한 시간의 정지 공간이 아니라, 외로움과 성숙이 교차하는 내면의 장(場)으로 기능한다.
- ⑤ 시는 감정의 폭발을 배제한 채, 사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생명과 시간의 이중 구조를 드러내며, 소멸과 생성의 공존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⑦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않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⑨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밭 가에서」

1.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의 사랑을 떠나보내며 삶의 순환을 수용하려 한다.
- ② 상실의 체험 속에서 재생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 ③ 외부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투사한다.
- ④ 잃음을 피하려 노력하며 상실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⑤ 감정의 고조 대신 절제된 사유로 사랑의 의미를 성찰한다.

2. ⑦과 ⑨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인식의 정적(靜的) 상태를 강조한다.
- ② 대조적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상실과 생명의 역설을 드러낸다.
- ③ 화자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표현한다.
- ④ 시상의 흐름을 중단시키며 현실의 허무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감정의 순환보다는 경험의 단절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물을 통한 상징적 의미의 구축
- ② 직유법과 의인법의 혼용으로 감정의 폭발 강조
- ③ 동일 어구의 반복으로 시간의 정체감 표현
- ④ 화자의 정서를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구문 중심의 진술
- ⑤ 자연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객관적 서술을 실현

4.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의 상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
- ②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고통의 잔여물
- ③ 사랑의 소멸과 그로 인한 절대적 공허
- ④ 정념의 지속을 통한 감정의 침잠
- ⑤ 시간의 무상함에 대한 냉정한 인식

5. 다음 보기 중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상실과 재생의 역설을 통해 인간 정서의 순환 구조를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붉은 사랑’이라는 과거의 감정을 떠나보내면서, 동시에 ‘새싹’이라는 생명적 이미지를 통해 삶의 지속성과 재생의 가능성을 인식한다. 반복되는 구절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얻음과 잃음이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존재 인식을 드러낸다. 시 전체는 감정의 폭발보다 절제된 사유를 통해, 인간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소멸과 생을 함께 끌어안는지를 탐색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 ① 화자는 과거의 정념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생의 덧없음을 자각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 새로운 존재적 감수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보기에 부합한다.
- ② 시는 ‘얻음’과 ‘잃음’이 순환적으로 맞물린다는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반복 구절과 대조적 이미지 구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상실의 순간에 이르러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것을 존재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허무를 성숙으로 치환한다.
- ④ 시는 상실의 체험이 필연적으로 허무로 귀결된다는 존재 인식을 내포하며, 생의 지속성보다 소멸의 불가피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 ⑤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은 소멸의 흔적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잃음과 얻음이 공존하는 역설적 미학을 구현한다.

번호	정답	해설 요약
1	④	화자는 '성에꽃'을 감상하며 따뜻함을 인식하지만, 현실의 비정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	②	초반의 냉정한 관찰이 후반부의 감탄·연민으로 변화한다. 시상 전개에 따른 정서 이동을 포착해야 한다.
3	②	시는 자유시로, 운율보다는 감각적 이미지에 중점을 둔다. '운율의 반복'은 부정확한 부분 진술형 오답이다.
4	②	'성에꽃'은 인간의 숨결이 남긴 흔적이며, 차가운 현실 속 따뜻함과 예술적 감흥을 상징한다.
5	④	'성에꽃'은 자연의 생명력이 아닌 인간의 체온(입김)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번호	정답	해설 요약
1	④	화자는 현실비판보다 교감과 연대를 지향한다.
2	②	황혼을 향한 갈망 → 만물 포용 → 허무의 인식으로 전개된다.
3	③	반복과 대조를 통해 황혼의 이중적 정서(갈망, 허무)를 표현한다.
4	②	'황혼'은 소멸과 외로움, 그 속의 연대 가능성을 함께 상징한다.
5	③	시는 인간의 무력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초월적 교감을 보여준다.

번호	정답	해설 요약
1	③	화자는 비애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내면화한다.
2	③	처음에는 비애를 부정하지만, 점차 동일시하며 '불사조'의 이미지로 승화한다.
3	①	'비애! 너는…'의 반복과 상징적 이미지로 정서가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4	②	'불사조'는 고통을 통한 부활, 정신적 재생의 상징이다.
5	③	화자는 비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존재를 인식한다.

번호	정답	해설 요약
1	④	화자는 허무를 부정하거나 의지를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 속에서 수용한다.
2	①	'여물어 가는 외로움'(㉠) → 내면의 성숙, '기인 기다림'(㉡) → 시간 속 지속의 수용. 감정은 소멸이 아니라 성숙·지속의 전환이다.
3	①	'꽃씨', '빛나는 외로움' 등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생의 순환과 내적 성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4	②	'꽃씨'는 찬란한 생명이 사라진 뒤에도 남은 생명의 가능성과 내면의 성숙을 상징한다.
5	③	③은 화자의 절제를 '생명력의 정적 상태'로 해석하여, 내면의 성숙이 지속되는 시의 정조를 정체된 평정으로 오독함. 시는 고요 속에서도 생명적 변화(여무는 외로움, 기다림)를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

번호	정답	해설 요약
1	④	화자는 상실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
2	②	‘붉은(소멸)’과 ‘푸른(재생)’의 대조적 이미지를 반복하여 상실과 생명의 역설을 드러낸다.
3	①	구체적 사물(계란, 새싹, 물)을 통해 추상적 의미를 상징화한다.
4	①	잃음과 얻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
5	④	④는 시의 ‘상실=허무’로 귀결시켜, 보기에 제시된 “상보적 순환 인식”과 상반된다. 화자는 상실을 부정하지 않으나, 상실로 끝맺지 않고 생명적 지속성을 인식한다.